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한·일 정책 비교 연구

김경찬 · 조석호 · 예병훈 · 손용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ixth Industry

Kim, Kyoung-Chan · Cho, Seok-Ho · Ye, Byeong-Hun · Son, Yong-Hoon*

Rural Community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Korean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s similar to that of Japanese such as goal of policy, setup and promotion method of specific policy projects as it benchmarked a Japanese case. First of all, the certification systems of both countrie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are very alike that the governments officially certificate management bodies, prepare the ground for continuous sixth industrialization, divid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into the central unit and regional unit, and have the function of support and control of sixth industrialization management bodies. Furthermore, both countries create fund for sixth industrialization as an investment support policy, and push forward with the phased support policy businesses such as individual support and connected support for management bodi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certification systems of both countries such as process-oriented or result-oriented for certification, subtle differences of the role in support organization, and the range and rate of support.

Key words : Sixth Industry,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후 195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생활 및 소득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이동필 등(2006)은 1950년부터 전개해온 농촌개발정책을 크게 4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새마을운동으로 대별되는 1958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로, 이 시기의 특징은 마을단위 종합개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2단계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주로 농업생산기반 등 농업 위주의 농촌개발이 시행되었던 시기이며, 3단계

는 1990년대 초부터 2000까지로 부처별 분산적으로 농촌개발이 시행되었던 시기이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2001년부터 마을단위 사업의 재등장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마을단위 사업이 재등장하던 4단계에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라는 주제가 농촌개발사업의 핵심과제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김경찬, 2008), 정부는 2008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농촌관광의 활성화, 농촌관광마을의 제도권화를 비롯한 다양한 도농교류 정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산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신활력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6차산업의 시초가 되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갔다.

이후 농촌관광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인 6차산업화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6차산업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5년 6월 약칭 "6차산업화법"이라 불리

Corresponding author : Son, Yong-Hoon

Tel : +82-2-880-8107

E-mail : sonyh@snu.ac.kr

Table 1. Chronical Change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Year	Main Streams	Managing Department [() ; Year of Starting Busines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55	Integrated Development in Village Unit				Communities Development Project('58)
1965			Housing Improvement Project('67)		Pilot Rural Development Project('62)
1970			Development of Small Towns('72)		
1975			Faulty Housing Improvement Project('76) Settlement Structure Improvement Project('76)		Saemaul Undong ('70)
1980	Agriculture-based Rural Development		Poor Restroom Improvement Project('80) Standup Kitchen Improvement Project('83)		
1985			Island Areas Comprehensive Development('88)		
1990	Decentralized Rural Development in Individual Ministries	Munhwa-Maul Project('91) Rural Settlements Development('92)	Remote Islands Comprehensive Development('90)		
1995			Housing Improvement Project('95)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96)	Farm Househol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97)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ject('95) (Forest Servic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9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0	Village Unit & Balanced Growth among Rural Development	Green Rural Tourism Villages('02) Rural Villages Comprehensive Development('04)	Arum Village Revitalization Project('01)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02)	Fishing Experience Villages('0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05) Rural Village Development('06)	Revitalizing Project('05)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04)	

Source : Song, M. R., Sung, J. I.(2004) Re-editing after Quotation

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2013년 이후의 시기를 6차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촌개발정책의 5단계라 칭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6차산업화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2011년 일본의 6차산업화법인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본격적

인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6차산업법과 6차산업화 정책은 일본의 그것들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6차산업화 정책의 목표나 추진되는 사업들이 일본의 그것들과 유사점이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일본의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 또한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를 정책의 목적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주요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6차산업화 정책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6차산업화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난 이후 양국의 정책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6차산업 관련 선행연구

“6차산업”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정의된 이유로 그동안 6차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지는 않았다. 2011년 일본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6차산업화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6차산업화”를 농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함으로써 6차산업화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촌관광마을 관련 정책사업이 각 부처를 통해 추진되던 2000년대 초반 류선무 등(2002)은 농촌관광의 관점에서 6차산업을 바라보았고, 농촌환경의 기능과 역할, Green-tourism의 개념, 농촌계획과 정비 이념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6차산업화 경영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방안으로 농촌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농업과 다양한 산업을 조화시키는 세트플레이(Set play) 전략, 개인 농가경영의 규모적인 한계에 따른 마을단위 팀플레이(Team play)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6차산업화법을 시행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1년에 맞추어 KREI(2011)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6차산업화를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역자원의 활용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경영주체보다는 지역단위의 조직경영체 단위의 관련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6차산업화 실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6차산업화가 우리 농정의 핵심과제로 자리잡은 2013년 이후 6차산업화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데,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 같이 한국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병오(2013)는 일본의 농식품 6차산업화 정책과 관련해서 6차산업화의 기본사고, 6차산업화 관련 법률과 정책, 6차산업화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

업인 및 농업법인의 중요성, 지역자원 활용, 농촌 공동체 기능 복원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좀 더 나아가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들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조록한 등(2013)은 8개 시도별 각 5명씩 농촌현장의 6차산업화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6차산업의 인지도, 6차산업의 장애요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6차산업화 기여도 등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코자 하였다. 그리고 양정임 등(2014)은 6차산업의 5개 유형별 각 10개의 주체(마을, 농가 또는 법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차산업 현장에서 인식하는 6차산업의 이해와 정책적 요구 사항 및 산업별 유형에 따른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6차산업화 정책수립 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비교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국가 간 6차산업화 정책비교 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내 6차산업화법이 최근 2015년에 제정·시행되었고 6차산업화 관련 연구도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이유로 6차산업화 관련 정책비교연구가 전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간 농업·농촌 관련 정책비교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중덕(1986)은 한국과 대만의 5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경제개발과정에서 시행한 농업정책, 특히 쌀과 비료의 교환정책, 농지세 정책, 정부의 쌀 강제구입 및 판매 정책, 농산물 거래에서의 정부 개입정책 등 농업정책에서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거시적 인과분석이라는 비교방법을 통해 밝혀내고,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광민 등(2008)은 세계화 및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한국과 영국의 농정 변화, 농촌관광정책의 도입 배경과 변화,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정책강화, 숙박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정책의 통합적인 지역개발 관점에서의 추진 등 향후 농촌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재현 등(2012)은 농촌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우리보다 일찍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농촌에서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해 비교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비교정책연구란, 정책의 정적인 또는 동적인 측면을 비교 연구하는

분야를 의미하며, 정부정책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전개되어 가는지를 국가 간에 비교분석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Feldman, 1978; 박대식, 2001). 비교분석에서의 사례선정방법은 실험을 위한 사례선정과 유사하나 통계처리나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선정방법과는 다르다. 비교분석에서의 사례선정은 많은 변수가 관련된 복잡한 현상을 소수의 정책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하는 관계로, 관심대상이 아닌 변수들의 간섭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한다(이송호,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비교정책 대상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 6차산업화법")」 및 이보다 4년 앞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6차산업화법")」, 그리고 각 법률과 관련된 정책으로 한정한다.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의 방법은 각 정책의 주요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지역개발정책을 비교분석했던 정원식(2009)은 비교대상의 세부항목으로 정책목표, 대상, 정책의 실행 주체 및 참여도로 설정하였고, 농촌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비교분석했던 김재현 등(2012)은 한국의 마을기업육성사업 및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사업과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정책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세부항목으로 정책의 목표와 대상, 실행주체, 정책의 전개 방식 및 사업내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6차산

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하나의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각 법에서 추진하도록 규정된 "6차산업화 사업 인증제도" 및 그것에 대한 실행주체, 체계, 사업내용, 인증현황, 지원, 특례 등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세부내용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6차산업화법은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정책에 대한 성과 비교항목은 제외하였으며, 6차산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춰 비교항목을 설정하였다. 비교분석의 방식은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과 법에서 추진하도록 규정된 정책사업에 대한 공식문서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목별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II. 한일 6차산업화법의 정책적 목표 및 정책

이 장에서는 각 제도의 정책적 목표와 주체, 주요정책을 비교하였다. 먼저 정책적 목표를 비교하기 위해 각 법에서 다루고 있는 "6차산업"의 개념 정의를 비교하였다. 한국의 6차산업화법에서는 6차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촌산업"과 "융복합"이 더해진 형태인데, "농촌산업"에 앞서 "농산업"은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및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가리킨다. "농촌산업"은 농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촌이라는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산업을 의미한다.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bject

Classification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Japan
System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Law of Sixth Industrialization in Korea)	Act on Creating New Business by Rural People using regional resource and Promoting the Use of Agro-Fishery Products (Law of Sixth Industrialization in Japan)
Department in Charg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rial Year	2015	2011
Comparative Ob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Objectives of Sixth Industry in Korea ▶ Certification System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Business ▶ Major Policy Project related to Sixth Industry in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Objectives of Sixth Industry in Japan ▶ Recognition System of Integration Business Plan ▶ Major Policy Project related to Sixth Industry in Japan

다. 그리고 “융복합”은 녹여서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융합(融合)”과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복합(複合)”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단어이다.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은 사전적인 관점에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산업이 조화롭게 결합된 산업”이라 해석될 수 있다. 한국 6차산업화법에서의 “농촌융복합산업”은 사전적 관점의 의미 이외에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법 제2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이러한 식품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농촌지역의 유행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 등 그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6차산업화법에서는 6차산업을 “종합화사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綜合)”이란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한다는 의미인데, 일본 6차산업화법에서는 이 “종합화사업”을 법 제3조에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를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한 농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신상품 개발·생산 및 수요개척, 직접 생산에 참여한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또는 개선, 그리고 앞의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어업 시설의 개량 및 취득,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

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법에서 6차산업을 의미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종합화산업”에는 어업이 포함여부 이외에 뚜렷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한국법에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판매·유통은 6차산업의 의미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법에서는 가공을 하지 않은 농산물의 유통(판매개선 등)도 6차산업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법에서는 식품가공 등의 제조업과 판매·유통·관광 등의 서비스업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일본법에서는 “판매방식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하였으나,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 등 단독적인 1차산업(농업)도 6차산업의 의미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법에서는 단순 농업적 생산은 6차산업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체험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1차산업(농업)을 6차산업에 포함시킨 반면, 일본법에서는 1차산업(농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6차산업의 의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각 정책별 목표를 비교하였다. 정책별 목표에 있어 두 제도 모두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6차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고용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까지도 마을에 정착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거시적 목표로 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화 인정사업자 육성,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등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2010년 약 1조엔의 6차산업화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1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15).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의 목표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기본적으로 일본의 목표와 유사하며, 세부적으로 6차산업 인증 사업자 600개소 이상 선정,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활성화, 6차산업

Table 3. Supporting Policies for Revitalization of Major Sixth Industrialization in Korea and Japan

Name of Policy	Related System	Policy Goal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Law of Sixth Industrialization in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Goal : Creation of Job and Value Added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 ▶ Policy Indicators : 600 Certification Businesses, 100 Local Food Direct Stores, 500 Rating Systems of Rural Tourism Village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Japan	Act on Creating New Business by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using regional resource and Promoting the Use of Agro-Fishery Products (Law of Sixth Industrialization in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Goal : Establishment of Society that enables Youth and Children to Settle in the Village by Ensuring Employment and Income ▶ Policy Indicators : 1 Trillion Yen(2014) → 10 Trillion Yen(2020)

주체간 컨소시엄 구축, 6차산업화 지구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100여개로 확대, 농촌체험마을 등급제 500개소로 확대 등의 비교적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목표는 한국의 6차산업화 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황이며, 6차산업화법이 2015년 6월 시행되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6차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본처럼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

III. 한·일 6차산업화 사업 인증제도 비교

1. 일본의 6차산업화 인증제도

일본의 6차산업화 인증제도는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제도”란 명칭으로 일본 6차산업화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림어업자 등이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농림수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이 계획을 농림수산성 대신이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인정을 해 주는 형태로 시행된다.

종합화 사업계획의 주체는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대로 “농업자, 임업자, 어업자 또는 이들로 조직된 단체(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며, 사업계획의 인정 절차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성 대신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계획서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 농림어업자 등이 농정국 지역센터, 지방공공단체, 상공회의소, 농협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종합화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

게 되며,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종합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해 농정국 지역센터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 사업계획의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①자가 생산 등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②자가 생산 등 농림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개선” 또는 “③앞의 ①, ②와 관계된 조치에 필요한 생산방식 개선”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영현황, 종합화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실시기간, 추진체제, 필요자금 및 조달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계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달성해야할 경영개선 지표로는 신상품 등 대상상품의 매출액이 사업기간을 포함한 5년간 5% 이상 증가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시 사업주체의 소득이 사업계획을 시작하는 시점보다 향상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종료년도에는 경영상 후자를 달성해야 하는 등의 목표가 제시된다.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사업자가 되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 펀드 출자 등의 지원 및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에는 개인 1천만엔, 법인 4천만엔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단기운전자금(슈퍼 S자금), 설립하는 사업체의 자본금 1/2까지 출자하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A-FIVE), 신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율 인상(1/2 → 2/3), 새로운 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보조율 1/2) 등이 있으며, 특례 규정으로는 농지전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농지법에 대한 특례 등이 있다.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는 연간 3회 실시되고 있으

Table 4. Status of Recognition of Integration Project Plan in 2015 (Based on March 31, 2015)

City	No. of Recognition	Items			U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s output
		Agro-Livestock Products	Marine Products	Forest Products	
Hokkaido	117	109	4	4	1
Tohoku	317	290	10	17	4
Kantō	345	314	13	18	12
Hokuriku	102	97	1	4	1
Totai	178	152	14	12	0
Kinki	357	329	10	18	2
Chugoku-Shikoku	230	182	11	37	3
kyushu	361	296	26	39	3
Okinawa	54	50	1	3	0
Total	2,061	1,819	90	152	26

Source :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

며, 시행 5년째를 맞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총 2,061건의 사업계획이 인정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 관련이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역별로는 큐슈(361건), 킨키(357건), 칸토(345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정 건수가 많고, 오키나와(54건), 호쿠리쿠(102건), 홋카이도(117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정 건수가 적은 편이다. 사업내용별 비율로는 “가공직매”가 68.9%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가공”이 20%, “가공직매-레스토랑”이 6.5%, “직매”가 2.5%, “가공직매-수출”이 1.6%, “수출”이 0.4%, “레스토랑”이 0.1%로 나타났는데, 가공과 관련된 인증건의 비율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의 6차산업화 인증제도

한국의 6차산업화 사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란 명칭으로 한국 6차산업화법이 시행되는 2015년 6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이하 “농업인 등”)이며, 사업자 인증절차는 농업인 등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인증을 받으면 3년의 유효기간을 주며, 인증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인증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년에는 시범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예비인증을 실시하였으며, 법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각 도 단위에 설치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인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① 해당지역 내에

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② 해당 지역의 농산물 또는 ①의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또는 “④ 앞의 ①, ②, 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으로 한다. 농업인 등이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세부계획 등을 작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는 각종 지원 및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6차산업 활성화 자금 용자(최대 30억) 및 6차산업화 전문펀드 투자의 대상이 되고, 각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6차산업 관련 정책사업의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판촉전, 유통전문가 초청 품평회, 제품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판로확보 지원과 TV, 신문 및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지원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2015년 6월 법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2014년 상·하반기에 걸쳐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 인증제를 실시하였다.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 인증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시행에 앞서 현 상황 파악과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전국 624개 사업자가 심사 대상이었고, 그 중 379개 사업자가 예비 인증을 받았다. 지역적으로는 전북(60건), 전남(57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예비 인증 건수가 많았으며, 1차, 2차, 3차가 모두 결합된 형태의 사업자에 대한 인증건수가 337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였다.

3. 6차산업화 사업 인증(인정)제도 비교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Table 5. Status of Preliminary Certification for Sixth Industrialization Business in 2014

Classification	Total	Gyeonggi-do, Incheon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Daejeon, Sejong	Jeollabuk-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Daegu	Gyeongsangnam-do, Ulsan	Jeju-do
Total	379	51	34	31	33	60	57	51	38	24
1st×2nd	25	2	2	1	1	1	5	5	4	4
1st×3rd	17	1	4	1	1	2	3	1	1	3
1st×2nd×3rd	337	48	28	29	31	57	49	45	33	17

와 일본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는 6차산업의 활성화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각 제도의 목적과 효과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각국의 제도에 의해 인증(인정)받은 경영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영체라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6차산업을 더욱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일본의 인정제도는 인정받은 경영체가 5년 정도의 계획을 통해 5년간 5% 이상 매출액 증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요구함으로써 과정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인증제도는 예비 인증제에서 2년간의 매출액 증가비율을 선정 지표로 삼는 등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경영체를 인증해주고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을 주는 자격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격 중심적인 인증제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초기 6차산업화 사업자에 불리한 사

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는 본 인증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점을 찾아 보완하거나 창업 및 기타 보조사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2,061건의 인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6채널”이라는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6차산업 및 사업자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건강한 6차산업 체계를 키워나감으로서 6차산업화 시장규모가 3조엔에 근접하였으며, 이를 축매로 하여 전체 농식품산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경영체를 키움으로서 6차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동시에 이들을 축매로 6차산업의 규모, 더 나아가 농식품산업 전체 시장규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Table 6. Comparis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Sixth Industrialization Project i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Name of System	Certification System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Project	Recognition System of Integration Project Plan
Basis	Article8~Article14	Article5~Article8
Subjects	Farmers, Agricultural Cooperation, Farmers Group, Small Business and Social Enterprise related to Agriculture, etc.	Farmers, Forest Farmers, Fishermen or Organization of Those Three Groups Above
Project Contents	① Manufacturing Food or Processed Goods made of Agricultural Products ② Selling Food or Processed Goods to Consumers ③ Providing Services Such as Experience, Sightseeing, Eating-out using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of Agricultural Area ④ Mixture of More than Two from 1 to 3	①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New Products using Agro-Fishery Products ②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New Sales Method for Agro-Fishery Products ③ Improvement of Production System for ① or ②
Status of Certification	397 Preliminary Certifications (2014)	2,061 Recognitions(2011~2015.3.31.)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ating Funding and Interest Rate Reduction for Sixth Industrialization ▶ Managing Fund for Sixth Industrialization ▶ Selection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Policy Projec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Multiple Farm Construction Project, Supporting Projects of Regional Consortium Configuration) ▶ Market Expansion and Promotion for Excellent Quality Products of Sixth Industri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rt Working Fund Loan(Super S) ▶ Investment from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Growth Industrialization Fund(A-FIVE) ▶ Subsidy Increase to New Product Development, New Market Opening ▶ Aid of Necessary Facility maintenance in Case of Dealing with New Processing and Sales
The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land Law : Exceptional Application of Report on Farmland Conversion ▶ Exceptional Application of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 Using Approval for other Purpos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 Facilities ▶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 Exceptional Application of Permission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ial Case of : Extension of the Term of Redemption and Loan ▶ Special Case of Farmland Law : Simplification of Farmland-Only Procedures ▶ Special Case of Urban Planning Law : Simplification of Construction Activity Permit ▶ Special Case of Law of Jongmyo : Exemption of Application Cost

IV. 한일 주요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 비교

1.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 비교

6차산업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본에서는 “6차산업화 서포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단위에 “중앙 서포트 센터”를 설치하고, 도도부현 단위에 “지역 서포트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농림어업자 등에게 6차산업화에 대한 교육과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받기위한 계획수립 상담, 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계획실행 과정에서 경영진단, 신상품개발, 판로확보, 펀드활용 컨설팅, 지역 또는 광역 범위의 사업기간 연계 등을 추진하며, 사례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실천모델 작성, 세미나 개최 등 각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 디자이너, 지역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6차산업화 중앙 서포트 센터는 2013년 설치되었고, 지역 서포트 센터는 2011년도부터 복수로 설치된 지역을 포함하여 47개 도도부현에 총 50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6차산업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중앙단위에 두고, 시도 단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둘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인데,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센터별로 인증 기준을 두고 자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사업자 후보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추천을 함으로써 최종 사업자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증사업자 경영실태 관리 등 사후관리,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및 우수제품 발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관계기관 간 정책연계,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6차산업화 관련 조사분석 등 지역 및 중앙단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별 1년 단위로 위촉하는 40명 내외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 2014년부터 각 도별로 1개씩 9개의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이 시행되는 2015년 6월 이후 중앙단위의 지원기

구도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일의 중간지원조직 모두가 6차산업화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 해당 지역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체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일본의 서포트 센터는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받기위한 지도 및 상담이 위주라면, 한국의 지원센터는 나름의 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기 전 중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소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이외에 일본 서포트 센터의 중요한 사업은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 제도이다. 6차산업화 플래너는 사업컨설팅, 사업계획 수립지원, 제도의 활용 안내 등을 실시하는 고급 전문 인력으로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선된 인재들이 선정되고 있다. 이들은 각 서포트 센터에 상주하거나 파견되어 종합화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인정 후 지원까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 발굴, 신상품 개발, 경영관리, 판로개척, 금융 등 실무에 필요한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서포트 센터의 플래너 선정과 활용은 실무중심 및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운용방향, 특히, 전문가 풀 활용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47개 도도부현에 50개의 서포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시도별 1개의 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6차산업화 경영체의 센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부분은 지원센터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시도 단위 아래 사군 단위 또는 거점단위 센터를 둠으로서 센터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6차산업화 주요 정책사업 비교

투자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12년 제정된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가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정부 300억엔, 민간 18억엔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의 펀드는 지역 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성한 “서브펀드”와 결합하여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의 출자비율을 펀드 총액의 50% 이하로 하여 민간자금의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투자대상은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사업자이며, 지역 농림 수산물의 활용과 현지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6차산업화 사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일

본은 2011년 6차산업화법을 시행하고 6차산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금법”을 통해 투자지원을 했다면, 한국에서는 2010년 제정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하여 매칭펀드인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결성된 자금을 농림수산물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490억의 자금이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모태펀드 내에서 6차산업 경영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2013년부터 특수목적펀드로 운용되는 6차산업화 전문펀드를 조성하였으며, 2013년 100억, 2014년 100억이 결성되어 투자되었고, 2015년에도 100억이 결성될 예정이다. 6차산업화 전문펀드의 출자비율은 조합양성총액이 70%이하로 일본 펀드의 출자비율보다 높으며, 법이 시행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경영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 비교할 한일 6차산업화 관련 주요 정책사업으로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및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 한국의 “6차산업화 복합농장사업”,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추진 지원사업”과 “정비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추진 지원사업”은 또 지역단계와 전국단계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지역단계 사업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농림어업자 등에 종합화사업 계획수립, 신상품 개발, 판로개척, 기술교육, 타 업종과의 교류회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국단계 사업의 경우는 “중앙 서포트 센터”를 통해 6차 산업화 전문 인력의 육성, 사업자 경영단계에 맞는 개별 상담 등 6차 산업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광역단위까지 확장되는 박람회, 판촉전, 품평회 개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실천모델 작성 및 보급 등의 활동에 지원한다. 6차산업화 추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기본적으로 1/2 이내이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사업자에게는 2/3 이내로 높은 보조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비 지원사업”은 일본의 6차산업화법과 “농상공 등 제후 촉진법”에 의해 인정된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농림 수산물의 가공·판매를 위한 기계·설비, 생산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하며, 또한 다음에 설명할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대규모 가공시설 등의 정비에도 지원되는 등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활용된다.

다음의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도 6차산업화 지원사업처럼 “추진 교부사업”과 “정비 교부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추진 교부사업”은 지역의 창의력에 의해 6차산업화, 농상공 연계, 지산지소(地産地消) 등을 이끌어나가는 인재의 육성 및 파견,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회의 개최 또는 관련 프로젝트의 조사·검토, 프로젝트 리더 육성, 공동 신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의 활동에 지원한다. 추진 교부사업의 경우도 교부율이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1/2 이내이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사업자의 경우는 2/3 이내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부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도 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정비 교부사업”의 경우는 일본의 6차산업화법과 “농상공 등 제후 촉진법”에 의해 인정된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대규모 가공 시설이나 기계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한다.

비교대상이 될 한국의 정책사업 중 “6차산업화 복합농장 사업”은 2015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업인, 법인, 협동조합 등 개별 경영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영체에 완전한 6차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 환경개선비, 가공품 및 체험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홍보·관측비,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두 번째 한국의 정책사업인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사업”은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은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 홍보·마케팅 등 공동사업의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단체가 주도가 되어 2차, 3차 산업분야 주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공동 사용 서비스 개발, 기술이전 비용, 역량강화 교육,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지구 사업”도 2014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함에 있다. 기본적으로 지구 사업은 사군이 참여해야 하는데, 사업의 대상

이 되기 위해서 시·군은 시·군 내 농업농촌 관련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의 관련부서가 복합적으로 참여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내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구 내 농촌산업 인프라 등 기존자원과 연계·보완이 가능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시·군 자체사업 또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일간의 기타 주요사업을 비교하면 일본은 경영체에 개별 지원하는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경영체간 네트워크 또는 지역단위 네트워크에 지원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 등 두 단계 수준의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이 각각의 사업도 “추진”과 “정비”란 명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의 단점, 즉, 사업비 소진을 위해 무리한 하드웨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

성사업”으로, 각각 사업이 경영체, 경영체간 컨소시엄 그리고 시·군단위 지역을 지원하는 총 3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주요사업들은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받는데 일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사업들과 달리 각각의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비 형태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반한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정책적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별 사업비 보조율의 비율은 한국의 보조율 비율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높은 편이며, 사업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업의 경우 인정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인정자에게 따로 더 높은 보조율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사업은 현재 인증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인증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조율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려 사업대상자의 자립도와 참여도가 모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요 사업 중 특히, 6차산업화 지구사업은 한국의 6차산업법 제4장에 “농촌융복합산업지

Table 7. Comparison of major policy projects for revitalization of Korean and Japanese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Name of Project		Content of Project
Projec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 : Supporting Certification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Business and Follow-up Management, Preliminary Certification, Supporting Inaugura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Supporting Sales, Distribution and Promotion, Reinforcement of planning capability for Local Area, Monitoring and Supporting Policy ▶ Supporting Method : Selection and Use of Expert(Approximately 40 by Centers)
	Specialized Fund for Sixth Industri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ing Institution :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 Contribution Rate of Specialized Fund for Sixth Industrialization : Less than 70%
	Other Major Projects	Construction of Sixth Industrialization Multiple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Supporting Individual Business to Achieve Complete Sixth Industrialization ▶ Object : Businesses Working on Sixth Industrialization such as Farmers, Corporations, Villages and Corporative Associations ▶ Support Contents : 100 million(Government Subsidies 50%, Local Fund 30%, Private Cost 20%), 1 Year
		Organizing and Supporting Projects of Regional Consortium Configu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Organizing Consortium between Sixth Industrialization Businesses and Promoting Joint Projects ▶ Object : Primary(More than 50 Farms Participated), Secondary, Tertiary Business Consortium ▶ Support Contents : 300 million(Government Subsidies 50%, Local Fund 30%, Private Cost 20%), 2 Years

Policy	Name of Project		Content of Project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Promoting Regional Specialized Industry Cluster Converged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 Object : Cities and Countries composed of Consultative Groups such as Agents of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relate to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 Support Contents : 3 billion(Government Subsidies 50%, Local Fund 50%), 3 Years 	
Projec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Japan	Support Center of Sixth Industri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 : Consulting and Guiding for Devising Integration Business Plan, Monitoring projects, Consulting, Education, Advise about Fund Utilization, Linking Between Businesses, Case Analysis and Finding Excellent Cases, Holding Seminars ▶ Support Method : Selection of Planners for Sixth Industrialization(Approximately 20 by Centers) and Dispatching to the Ground, Providing Consulting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Sector Growth Industrialization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ing Institution : Support Institution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Sector Growth Industrialization ▶ Contribution Rate : Less than 50% 	
	Other Major Projects	Suppor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Support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Suppor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New Products and Market Opening ▶ Object : Private Organization such as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 Support Contents : Subsidy Ratio Within a Half of Flat Rate(But, Within a Two-Third of Recognized Businesses)
			Support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Providing Necessary Servicing of Machines and Facilities for High Value-Adde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 Object : Private Organization such as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 Support Contents : Subsidy Ratio Within a Half of Flat Rate
		Suppor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Network Activities	Promoting Support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Support Activitie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Linking Farmers, Jisan Jiso Movement ▶ Object : Local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Organization such as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 Support Contents : Support Ratio Within a Half of Flat Rate(But, Within a Two-Third of Recognized Businesses)
Organizing Supporting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al : Providing Necessary Servicing of Massive Processing Facilities and Machines for Building Sixth Industrialization Network ▶ Object : Private Organization such as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 Support Contents : Support Ratio Within a Half of Flat Rate 	

구의 지정 및 육성”이란 제목으로 규정될 정도로 지역의 대표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일본의 경우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의 사업 범위를 다양화하여 도도부현 및 그 이상 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명확히 시군 단위 및 그 이상 범위의 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구사업을 타 사업과 분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추진했던 신활력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도 유사한 면이 많으나, 규모의 차이, 집적도 향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의 대표 6차산업을 더욱 끈고히 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 6차산업화 지구는 그 선정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6차산업화 직접도, 지역특화계수, 연계된 정책사업의 밀도 등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6차산업화 정도가 이루어진 지구와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구 등으로 분리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정된 지구는 6차산업화 정도의 수준에 따라 지원규모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일간의 6차산업화 정책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국의 6차산업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6차산업 용어의 개념,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양국의 법에서 추진하도록 규정된 핵심정책인 6차산업화 인증제도, 그리고 6차산업화 관련 중간지원조직, 투자지원 정책 사업 및 기타 6차산업 경영체와 경영체 간의 연계조직 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여, 각 정책의 세부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은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였기 때문에 정책목표에서부터 세부 정책사업들의 구성과 추진방법까지 매우 유사한 면이 많은데,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 정책인 양국의 인증제도는 정부가 경영체에 공식적 인증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6차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정책의 방향을 같이한다. 다만, 한국의 인증제도는 예비 인증시의 자격 중심적인 인증제의 성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인정사업자 육성사례처럼 인정사업자를 건강히 키움으로서 농식품산업 전체 규모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일 중간지원조직 정책도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6차산업화 경영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매우 유사하나, 실질적 추진단계에서 일본 서포트 센터의 다양한 플래너 활용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일본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50개의 지역단위 서포트 센터를 설치하는 등 밀도 있는 센터 접근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향후 적절한 지역단위 지원센터의 밀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사업들에 대한 체계, 사업대상, 보조율 비율 등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한국 6차산업화 정책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한국의 기타 주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사업의 선정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비교정책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에 해당되므로 연구결과에 있어 객관적 입증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과 2011년부터 제도권 내에서 추진되어온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목표, 주요사업의 구조 등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해 처음 시도한 비교정책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한국의 관련정책 추진기간이 짧아 양국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 정책의 성과와 함께 주요사업의 추진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Feldman, Elliot J., 1978, Comparative Public Policy, Comparative Politics, 10(2), 287-305.
2. Jo, L. H., Pang, D. H., Seo, H. S., 2013, A Study on Needs in the 6th Industry in Rural Korea, Journal of Rural Tourism, 20(2), 137-152
3. Jung, W. S., 2009, Comparative Stud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on the Perspective of New Regionalism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3(3), 23-53
4. Kim, E. G., 2014, Development Trends of Domestic and Abroad Agricultural Sixth Industrialization and Future Direction
5. Kim, J. D., 1986, Comparative Study on Agricultural Policy betwee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Korean Social History, 5, 95-128
6. Kim, J. H., Tea Y. L., Hwang, S. C.,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of Community Business for Rural Vitalization in Korea and Japan, Green Tourism Research, 19(1), 1-17
7. Kim, K. C., Kim, D. L., 2008 Explanation Book about “Act of Exchange Promoting Activ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8. Kim, T. G., 2014, Development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gricultural Sixth Industrialization, World Agriculture, 171
9. KREI, 2011, Agricultural Sixth Industrialization and How to Create Added Value
10. KREI, 2011, Guideline of Sixth Industrialization for Japanese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
11. Lee, B. O., 2013, Agricultural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Japan,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25(2), 78-92
12. Lee, D. P., Choi, K. H., Sung, J. I., 2006,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Rural Development and Welfare Projects.
13. Lee, S. H., 1995, Review of traditional methodology in comparative Policy Study, Journals of Korean

- Public Administration, 29(2), 339-360.
14. Lee, Y. K., 2014,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Japanese Agricultural Sixth Industrialization, World Agriculture, 162
 15. Park, D. S., 2001, Approaches to comparative Public Policy Study, Social-Science Research, 12, 79-92
 16. Ryu, S. M., Kim, S. G., Park, Y. I., Ryu, H. J., 2002, How to Make Agriculture, the sixth Industry and to Adopt Multilayered Administration, Green Tourism Research, 9(1), 1-21
 17. Song, M. R., Sung, J. I., 2004, Evaluation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grams and Suggestions for Participatory Village Development Model.
 18. Yang, J. I., Lee, J. H., Hwang, D. Y., 2014, Empirical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6th Industrialization of Rural Agricultural Resources, 20(3), 111-120
 19. Yoo, K. M., Yoo, J. K., 2008, Comparative study on Rural Tourism Policy between Korean and England focused Globalization and Post-Modernism, Green Tourism Research, 15(1), 31-57
 2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A Support Policy Manual for Sixth Industrialization
 21.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3, A Study of Enacting Rural Industry Promotion Act
 2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A Study on Building Intermediary Support System for Sixth Industrialization and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Rural Industry Business
 2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Management Plan for Support Center of Revitalizing Sixth Industrialization
 2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4, Project Manual for Sixth Industrialization by type
 25.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
 26. 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 <http://www.a-five-j.co.jp/>
 27.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15, 6次産業化の論理と展開方向 —バリューチェーンの構築とイノベーションの促進
 28. 第6チャンネル <http://6-ch.jp/>
 29. 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 <http://www.6sapo-center.net/>
-
- Received 5 May 2015
 - First Revised 8 June 2015
 - Finally Revised 18 June 2015
 - Accepted 18 June 2015